

경제포커스

■ ‘글로벌 도시, 서울’ 을 향하여

최재헌(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

홍석기(서울시정개발연구원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

‘글로벌 도시, 서울’ 을 향하여

최재현*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choijh@konkuk.ac.kr

I. 서론

글로벌 도시, 세계도시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지하철 광고판에서도 세계 도시 서울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눈에 띄고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하나 이상의 세계 도시를 자국 내에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광고에 있는 것처럼 세계도시가 단순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점일까? 대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격차가 더욱 커지고 지방 중심의 사고가 새로운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살기 좋은 서울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방과의 균형을 이룩해야 할 묘안을 찾아야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이 새로운 슈퍼 파워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황해권을 둘러싼 인접국 도시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 서울대 지리교육과 및 동대학원 졸업, 미네소타대학교 지리학과 박사,
- 도시와 국토(2004) 공저, 지역분석의 기초(2004), 한국지리지 수도권편 공저(2007)
- “세계화 시대의 도시변화 이해를 위한 개념 모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외 다수의 논문

이 글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로벌 도시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글로벌 도시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리고 우리 국토 상황과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의 노력에 비추어 글로벌 도시로의 서울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적 가치는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세계화에 따른 인문 환경의 변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흔히 세계화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경제활동의 국제화는 상품 교역이 활성화 되었던 19세기에도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축소지향적인 세계, 상호 연결된 세계, 다원화된 세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축소지향적인 세계라는 말은 정보통신과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라 단위시간 당 극복할 수 있는 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자넬(Janelle)은 이런 현상을 시공의 수렴화라고 칭하였다.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의 수렴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도시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들 사이에 인구·상품·자본의 이동의 더욱 활발해지면서, 지구촌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공동체가 바야흐로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 컨테이너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운송수단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더욱 상호 연결된 형태로 바뀌었다. 곡물 가격의 폭락, 증시의 폭락, 원유가의 인상은 더 이상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 세계 시장을 마비시키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파리에서 패션쇼를 한 제품이 다음날 동대문 시장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등 상품의 생산주기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지리학자 하비(Harvey)는 이렇게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상품의 생산주기와 생활의 리듬이 빨라지는 현상을 시공의 압축화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서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해서도 사랑이 싹트고 친구를 사귀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싸이월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사회학자 기든스(Giddens)는 시공의 원격화라고 개념화하였다. 즉, 오늘날 인류는 시공의 수렴화·압축화·원격화로 대표되는 전혀 다른 인문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도시는 열린 공간으로서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로 대별되는 국제 난민집단의 형성, 국제 이주자, 국제 엘리트 집단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각 국가에서 만들어내고 다원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엘리트 계층인 고급 두뇌집단은 다원화 한 문화적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공항에서든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음식을 쉽게 사먹을 수 있으며, 인터넷서널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국제적 생활양식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또한 아래로 부터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국제결혼이주와 같은 국제적 인구가동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은 더 이상 농촌 총각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농촌보다는 도시에 정착하는 다민족가정수가 더욱 많은 것은 다원화의 주체가 도시임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인구와 상품,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는 열린 공간, 개방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카스텔스(Castells)는 이런 열린 공간의 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로서 그 특징을 밝히고 있다. 네트워크의 사회의 공간 구성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이며, 정보와 의사결정, 기업 활동의 촘촘한 그물망에 엮인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듯이 아무리 가까워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도시는 멀리 떨어져 네트워크에 연결된 도시보다 도시 간 상호작용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즉, 도시 간에는 가까운 거리인 근접성(proximity)보다는 네트워크에서의 결절성과 도시의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대적 위상성(positionality)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 도시 네트워크에서 누가 강력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누가 국경을 초월하여 자본과 상품, 정보 흐름을 잡아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달려있다. 즉, 상대적 위상성은 고급 두뇌, 높은 장소적 매력도, 공항과 항만, 텔레포트 등의 인프라를 가지고 세계 경제에서 의사결정과 정보·상품·자본의 결절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이후가 도시국가가 무역의 침병으로 떠올랐다가,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국가 중심으로 바뀌고, 마침내 세계는 도시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다시 접어든 것이다.

2. 세계도시, 글로벌 도시의 등장

세계화의 필연적 귀결로 알려진 것이 바로 세계도시(global city)의 등장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규모가 천만 이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수위도시(primate city)의 구실을 하는 거대도시(mega city)와 세계都市는 다른 개념이다. 거대도시의 기능이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都市는 그 배후지를 하나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거대도시가 세계都市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세계都市로 알려진 곳은 뉴욕, 런던, 그리고 도쿄로서, 이들은 각각 세계 경제의 3극 체제를 구성하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都市이다.

일찍이 대문호 괴테는 로마와 파리를 지칭하여 ‘세계都市(Weltstad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15년 패트릭 게데스(P. Geddes)는 몇 개 국가에서 새롭게 대규모로 형성되는 대도시를 세계都市라고 하였고, 피터 홀(P. Hall)은 그의 저서 ‘세계都市’에서 파리·모스크바·런던·뉴욕·도쿄 등을 세계都市라고 불렀다. 역사학자 토인비(Toynbee)도 북미의 메갈로폴리스가 거대한 도시지역으로 연결되어 에쿠메노폴리스(ecumenopolis)를 형성할 것을 예상하며 이를 세계都市라고 불렀다. 그러나 세계都市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프리드만(Friedmann), 울프(Wolff), 테일러(Taylor), 킹(King), 사센(Sassen) 등의 학자들에 의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세계都市와 같은 용어로서, 사센 등에 의한 글로벌 도시는 경제에 국한된 의미에서 벗어나 초국적 사회의 도래, 세계 문화, 세계 정치와 이념 등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세계都市로 거명되는 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계都市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여러 도시계층으로 나누어지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Reed 등은 초국적 중심지와 국제적 중심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계층과 2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초국적 중심지에 해당되는 도시로는 제1계층에 런던과 뉴욕이, 제2계층에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취리히 등이 있다. 그 하위에 국제적 중심지에 해당하는 도시로는 제1계층에 바젤, 뭄바이, 브뤼셀, 시카고,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홍콩, 마드리드, 멜버른, 리우데자네이루, 로마,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싱가포르, 시드니, 토론토, 빈 등이 포함되고, 제2계층에 서울을 위시하여 바레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고베, 로스앤젤레스, 룩셈부르크, 밀라노, 몬트리올, 오사카, 파나마시티, 타이베이 등이 해당된다.

세계都市의 등장은 세계적 규모에서 경제조직이 통합되고 공간적 분산화가 이루어지면

서, 도시에 경제적으로 통합된 결절점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역할이 주어진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첫째, 정보통신기술과 극소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정보의 생산과 교류, 가공이 용이해지게 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 통신망에 의해 세계적 수준에서 다양한 정보 교류가 원활해졌고, 이들 정보를 생산 가공할 수 있는 결절점이 새로운 명령 통제소로 떠 오른 것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활동이 공간적 신국제노동분업을 촉진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추 결절점으로 세계도시를 등장시켰다. 즉,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 기능은 개발도상국에 자리 잡고, 연구개발 기능은 대학을 중심으로 고급 두뇌가 모여 있는 실리콘 벨리나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며, 의사결정과 관련된 고급 사업자 서비스 기능은 세계도시에 입지한 것이다. 물론,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자본주의의 물결이 세계를 휩쓴 것도 세계도시 등장의 바탕이었다.

셋째, 세계도시는 고차적 생산자 서비스와 금융이라는 특수한 부문의 생산지라는 점이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금융결제수단이 필요하고, 자본의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오늘날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세계도시들은 자본의 세계적 팽창을 가능하게 해주는 국제금융시스템을 위한 장소이다. 런던 증시가 문을 닫을 때쯤이면 뉴욕 증시가 개장하고, 뉴욕이 문을 닫을 무렵 도쿄 증시가 아침을 시작한다. 즉, 각각이 8시간씩을 맡아서 24시간 금융거래의 텔레이가 이루어지는 곳이 세계 금융센터이자 세계도시인 셈이다.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위하여 발달한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 군도 등의 역외금융기지(offshore financial center)는 이런 금융거래 과정에서 끊긴 시차를 보완하는 장소들이다. 세계도시에는 금융부문 외에도 법률, 광고, 부동산, 보험, 경영컨설팅, 국제운송, 텔레콤, 컴퓨터, 연구, 고등교육, 기술컨설팅 등의 생산자 서비스 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도시내 특정 중심지구에 집적하여 발달하고 있다. 이런 고급 생산자 서비스는 대면접촉을 중시하고, 협조하면서 경쟁하는 특성 때문에 지리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넷째,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국제 소비자 시장의 동질화가 세계도시 등장의 한 원인이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특정 상표를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광고를 통한 상징성 부여는 이런 국제 소비자 시장의 동질화를 위한 관건이다. 담배 광고부터, 신발 광고, 전자 제품 광고에 이르기 까지 광고의 홍수에 휘말리는 것은 장소와 지역의 상징화를 이용하여 브랜드 상품화를 추구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상품과 장소의 상징성

을 창출하는 핵심에 세계도시가 있으며, 세계도시는 시장개척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세계도시의 등장은 세계화된 경제의 출현을 반영하며, 세계도시에 어떤 명칭을 붙이던지 세계 경제력이 집중되고 세계경제가 조절·통제되는 핵심지인 것이다. 이런 핵심지는 국내적으로 국가의 수도로서의 위상 뿐 아니라 국제 자본, 본사의 의사결정 기능, 사업 정보의 집결지, 세계적 시장의 확대 등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3. 글로벌 도시의 기능과 과제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글로벌 도시는 과연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 유동공간, 장소공간, 제도공간, 신지방주의 공간의 네 차원의 공간으로 나누어 글로벌 도시의 기능을 살펴보자(최재현, 2006). 첫째, 오늘날의 세계를 각종 재화, 인구, 정보 등이 빠르게 흘러 다니는 유동 공간(spaces of flows)으로 이해하면, 이런 유동공간에서 글로벌 도시는 글로벌 시스템에 통합된 형태와 강도에 의해서, 또는 자본에 의해 그 도시에 부여된 공간적 탁월성에 의해서 규정된다. 즉, 글로벌 도시는 각종 정보와 인구, 재화의 흐름이 모여들고 분배되는 결절점이며, 초국적 기업의 본사나 세계기구 등이 입지하여 세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명령 통제소의 역할을 한다. 유동공간에서 글로벌 도시는 초국적 기업이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의 고도화를 달성하며, 노동력의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초국적 엘리트 계층이 활동하며,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가 이동하는 공간인 것이다.

둘째, 세계화에 따라 입지와 장소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지역의 독특성을 이용하여 장소의 매력을 높이는 일은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유동공간에서 각종 흐름을 유인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장소는 어느 정도 영역성을 확보한 공간으로, 산업클러스터, 신산업지구 등은 지역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장소공간(spaces of places)이다. 세계도시에서 삶의 질과 어메니티 수준을 높이는 일은 고급 두뇌와 노동력을 유치하고, 장소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활용하여 세계도시로 가꾸는 길이다. 장소공간을 중심으로 보면 도시에서의 기능 집적지의 형성과, 장소를 매력적으로 바꾸어 자본을 유인하고 로컬리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글로벌 도시는 내생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각종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공간적 불평등성을 만들어내는 차별화 된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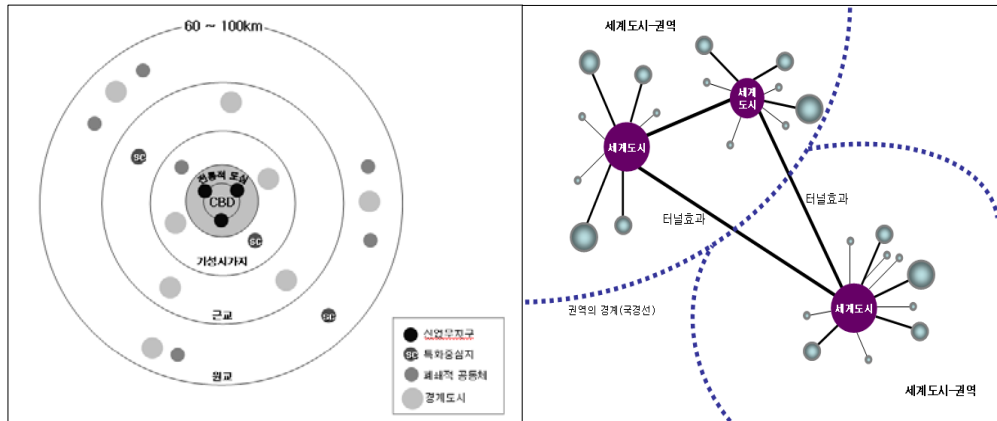
셋째, 제도공간적 시각으로 보면, 국가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제도공간은 제도조직적 차원에서 법 권력 규범 등의 규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공간이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공간 정책을 펼친 결과가 글로벌 도시이며, 이런 과정이 세방화(globalization)로서 이해된다. 세계도시로 발전시키려고 중앙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도적인 협력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며, 도시정부는 도시재구조화를 실시한다. 즉, 글로벌 도시는 국가라는 정치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공간으로서, 정치적 수단이며 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인 것이다.

넷째, 세계 경제에서 도시는 경쟁력의 기본 단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지방주의에서 도시 정부는 국가의 하부 단위와 수단이 아닌 능동적인 도시발전의 주체로서, 세계화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내생적 자원을 극대화 하고 상향적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도시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도시 간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경쟁주체가 되면서 새로운 도시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중심도시에서 권역이 50-100km 이상 확장된 광역도시권역이나 거대도시권이 남중국의 성장삼각지, SIJURI 지역 등에서 형성되거나, 정보 인프라의 발달에 따라 조호르 비스타리 시(Johor Bistari)와 같은 지능형 도시가 등장하고 있다. 즉, 글로벌 도시는 도시정부의 차별화된 노력과 도시 거버넌스가 투영된 결과이며,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경쟁 주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도시형태를 창출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도시는 다른 도시들과의 외부적 관계와 도시 자체의 내부적 문제로 나누어 향후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 먼저, 다른 도시들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보면,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금융자본 등의 행위가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규모에서 다양한 도시계층을 형성하는데, 그 중 상위 계층에 속하는 도시들이 세계도시이다. 그러므로 세계도시는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강력한 중심성과 매개성을 가진다. 이런 중심성은 초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자본과 같은 다양한 행위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글로벌 도시가 중심성과 매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본과 기업주체들 사이에 이해조정과 교섭과정, 도시 및 국가간의 경쟁 및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도시의 내부적으로는 이런 중심성을 유지하기에 걸맞은 형태로 도시재구조화가 진행된다. 글로벌 도시의 내부에서는 소수 이민자와 극빈자들이 도시내부에 집

적되면서 도시내부의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고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변부적인 특징이 재생산되는데, 도시재구조화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글로벌 도시에서 기울이고 있는 도시재구조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경제적 재구조화를 위해서 고용구조를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초국적 엘리트와 고차생산자 서비스 부분에서의 고용창출, 인재유치의 활성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남영우(2007)

<그림 1> 세계도시권역의 내부구조

출처: 남영우(2007)

<그림 2> 세계도시-권역 모식도

둘째, 사회적 계층의 양극화와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 글로벌 도시에는 다국적 엘리트 그룹 뿐 아니라 극빈층과 영구적 하류층이 동시에 거주하며, 인종적 민족적 적대감이 상존한다. 이는 인종 갈등과 종교 갈등을 유발하면서 테러리즘, 유괴, 가두시위, 폭동 등의 사회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주거지 격리에 의해 공간적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집단과 민족 및 인종집단, 지역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여 정치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의 해소를 꾀하는 방식이 사회적 재구조화의 과정인 것이다.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물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물적 재구조화는 세계도시로 발전하면서 필요한 초고속운송체계, 초고속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과 함께, 기존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세계도시-권역으로의 공간적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다. 스코트(Scott) 등이 제시한 세계도시-권역(global city-region)은 공간적 범위가 세계도시보다 크고, 세계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시 간에 상호보완적인 다

핵 구조의 도시권역을 형성하기 위해 권역 내부적인 연결성과 기능적 상호보완성을 중시하는 개념 틀이다(<그림 1>). 세계도시들은 기능 보완을 위해 주변도시와 연결하여 세계 도시-권역을 형성하는데, 때로 국경을 넘어선 세계도시-권역이 고도의 교통수단에 의해 연결되었을 때 뉴욕과 런던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효과가 발생한다(그림 2). 세계도시가 중심성에 바탕을 두었다면, 세계도시-권역은 도시간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기능 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도시권역을 이용하여 공간적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다양한 지역 간의 상보적인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III. 결론: 글로벌 도시, 서울을 지향하며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동공간에서의 정보와 인적자원, 자본의 결절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는 서울이 갖는 상대적 위상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경기도와 인천과 연합하여 기능 분담을 통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유동공간에서의 우위성의 확보는 장소공간으로서의 서울의 매력을 제고하는 방향과 맞물려 있다. 도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주거환경 등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은 장소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공간과 신지방주의적 시각에서 강조하였듯이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 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학·지역사회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지역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지방화와 동의어이다. 서울의 역사 문화적 자산, 시민 의식, 창의적 노력 등을 바탕으로 서울만이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킬 때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셋째,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도시가 연합한 세계도시-권

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연구(강승호, 2007)를 보면 서울의 경쟁력은 상해, 심천, 북경, 광주 등 중국 도시들에도 크게 뒤쳐진 5위에 머무르고 있다. 인천의 경쟁력도 비슷한 중국의 항구도시인 청도와 대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들이 연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수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권이 서해안으로 확장된 서해안 세계도시-권역과, 남해안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세계도시-권역,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내륙 세계도시-권역 등을 구상할 수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중국연안 지역과 연계한 환황해도시-권역이나, 러시아와 일본과 연계한 환동해도시-권역의 형성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도시의 발전방향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서해안권을 세계도시-권역으로 만들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여러 지역 간의 상호보완적인 기능관계를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을 두고 구축하고, 이를 위해 도시간 협력체제와 수도권청 등과 같은 다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도시로서 도시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공간적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적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기업부분에서 고용구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제조업과 정부부문 일자리로 경시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양극화 보다는 중산층 확대를 강조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소외집단을 해소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공동의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물적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심내 무빙위커 건설, 보행공간의 확대, 친환경 압축도시 건설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서울이 가장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가는 길은 제한된 자원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방법이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다문화주의, 고령화, 도시화, 환경화의 높은 산을 넘어서는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 강승호, 2007, 한중 양국의 주요 도시 경쟁력 평가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보고서.
- 김인, 2005, 세계도시론, 법문사, 서울
- 남영우, 2006, 글로벌시대의 세계도시론, 법문사.
- 남영우, 2007, 9.17.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도시권역의 개발전략,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발표논문, 1-16.
- 최재현, 2005, “세계화 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7.
- 최재현, 2006, 세계화 시대의 도시 변화 이해를 위한 개념 모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2), 1-13
- Sassen, S., 2002, Global Network, Linked Cities, Routledge, New York, 249-271.
- Scott, A., (ed) 2001, Global City Reg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